

**전일동향**

전일대비 2.50원 상승한 1,390.10원에 마감

29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.50원 상승한 1,390.1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.60원 하락한 1,385.0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결제 및 해외 투자 환전 수요에 상승세를 보였다. 아울러 국내증시 외인 매도세에 환율은 추가 상승하며, 1,390.1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6.0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5.31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85.00	1393.40	1385.00	1390.10	1387.70
엔화	944.15	947.32	942.09	945.15	-	
유로화	1620.74	1627.37	1615.61	1624.10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2.19	-6.75	-14
결제환율(수입)	-1.8	-5.7	-12.01	-23.17

\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\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**금일 전망**

대외 불확실성에...1,38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20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90.10) 대비 1.20원 하락한 1,386.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미국 PCE 예상치 부합에도,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등에 상승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 7월 PCE는 전월비 0.2%, 전년비 2.6% 상승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. 근원 PCE도 전월비 0.3% 증가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. PCE 발표 후 메리 데이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보인다며 정책 재조정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발언했다. 한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쿡 이사 해임 정당성 판단을 위한 첫 심리를 개시했다. 또한 미국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하고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다. 달러인덱스는 PCE 결과를 소화하며, 연준 독립성 훼손 및 미 관세 불법 판결 등에 약보합 흐름을 보였다. 연준 이사 해고 관련 소송 및 미 관세 판결 등으로 불확실성이 부각됐으며, 이에 금일 환율은 제한적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 수급상 결제수요 등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환율 상방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.

다만, 1,390원 위쪽에서 대기 중인 수출 네고 및 연준 금리인하 기대 등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

<b>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</b>	<b>1383.00 ~ 1391.80 원</b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체크포인트</b>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3723.71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.2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5544.88, -92.02p(-0.2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12.81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6917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